

안테나

인천·부평새일센터, 여성 일자리 발굴



인천·부평새일센터가 소도문단양에서 ‘(사)인천수출경 영자협의회와’ 수출 기업의 여성 취업지원 상호협력과 여성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부평새일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 및 인천시 지원 사업으로 여성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수행, 일자리관련기관 협력네트워크구축, 예비창업자발굴 및 지원, 새일센터 역량제고, 경력단절예방사업, 특화형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가족친화인증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은 인천시 여성의 취업을 촉진,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더불어 기업 지원사업에 필요한 상호 인프라를 활용해 인천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 지원서비스, 새일인턴십 연계, 경력단절예방지원 등의 운영을 위해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안종삼 기자

인천시 ‘디아스포라 영화제’ 개최

인천시 (사)인천영상위원회가 19~23일까지 5일간 중구에 위치한 인천아트플랫폼과 애관극장에서 제11회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개최한다.

19일 오후 7시30분 인천아트플랫폼 야외무대 현대의 광장에서 제11회 디아스포라 영화제(주최: 인천시/주관: 인천시영상위원회/후원: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막식이 열린다.

개막식은 조민수 배우와 김환 아나운서의 사회로 데이브레이크의 개막공연에 이어 개막작으로 ‘어웨이’가 상영된다.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올해로 11회를 맞은 인천을 대표하는 영화제로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하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영화제이기도 하다.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이주의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가 깃든 인천에서 영화를 통해 차별과 편견 등으로 소외받는 이들의 다양성과 관용의 가치를 나누고자 기획된 영화제로 750만 재외동포를 이어주는 거점으로서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는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김중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300만 시민과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제11회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계기로 축하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인천시, 조손가정 특별한 해외여행 지원



인천시가 (주)낭랑풍선과 함께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인천시에 거주하는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앞서 지난 12일 시와 (주)낭랑풍선은 조손가정에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기로 뜻을 모으고 ‘해외여행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참가 신청자 중 최종 17명을 선정해 오는 6월29일부터 7월3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떠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예정이다. 여행경비 전액은 여행사인 (주)낭랑풍선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진행된다.

여행 참가를 희망하는 조부모 75세 미만, 아동 7세 이상의 조손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거주지 관할 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안종삼 기자

인천시, AI 적용 메타버스 콘텐츠 공개

인천시가 16일 국내 최초로 ‘챗GPT(AI 인공지능)’를 적용한 메타버스 콘텐츠를 선보였다.

메타버스 게임 ‘마인크래프트(Minecraft)’에 온라인 가상 세계 인천을 구현한 ‘인천크래프트(Incheoncraft)’를 운영하는 인천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챗GPT 기술을 적용한 콘텐츠를 유성·꾸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콘텐츠는 유튜브 유성·꾸뎀과 일반인 이용자들이 함께 인천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비롯해 시민들이 평소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생성형 인공지능(AI) 캐릭터 쿤(KOON)과 소통하는 영상 콘텐츠로 인천크래프트의 재미를 한층 더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공개한 콜라보 영상 콘텐츠는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공개 7일 만에 총 조회수 30만, 좋아요 9230건, 댓글 396개가 넘었다. 영상에 힘입어 동기간 인천크래프트 서버 이용자도 3만명을 달성했다. 안종삼 기자

안전한 교육환경 제도적 기반 마련

한민수·이봉락 인천시의원  
임시회 상임위 심사 통과해

인천지역 교육기관의 환경보전 실천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6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한민수(국·남동5)·이봉락(국·미추홀3)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과 ‘인천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8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우선 한민수 의원은 인천지역 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줄이는 교육·홍보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인천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실천 현황 조사 및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추진, 저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민수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발생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1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해 기후환경 위기와 폐기물의 심각한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인천지역 교육기관의 환경보전 실천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왼쪽부터 한민수·이봉락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

제정을 계기로 우리 인천시교육청 차원에서 도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파괴를 막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봉락 의원은 각급 학교의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인천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과학실 내 안전 장구 관리 구축과 유해화학물질·폐수·폐시약 등의 관리와 사고 대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 처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

로 보고 있다.

이봉락 의원은 “학교 내 과학실은 폭발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으로 우리 학생들이 맘 놓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치며 학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도심 속 하천 생태 회복 살핀다

인천시, 공촌천 등 4개 하천  
이달부터 생태 건강성 조사

인천시가 생물 관점에서 수생태계 건강성을 진단하고 하천의 자연성 회복 파악을 위해 공촌천·굴포천·승기천·장수천에 살고 있는 저서동물 조사를 실시한다.

수생태계 건강성이란 물 환경의 생태적 적합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서식 생물군의 분포 특성, 오염도에 대한 반응 등 생물학적

특성을 반영한 생태 중심의 물환경 조사 방식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하천에 살고 있는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저서동물)을 봄·가을 두 차례 채집해 출현 종수, 개체 밀도, 오염 민감도 등의 지표로 분석한 등급 평가로 현재 하천의 생태적 온전성 단계를 파악한다.

지난해 예비 조사 결과, 주요 하천에 출현한 저서동물 총 38종 1만5835개체를 활용해 평가한 건강성 등급은 대부분 ‘매우 나쁨(Ⅲ)’을 나타냈으나 공촌천 상류 등 일부 지점

에서 ‘보통(Ⅱ)’ 등급 이상의 결과도 보였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3년간(2019~2021) 조사한 한강권역 도시들의 하천 생태 건강성 조사 결과와 유사했고 일부 지점에서 나타난 양호한 건강성 결과는 지역에 맞는 조사 필요성과 생태 회복 가능성을 엿보여 올해부터는 저서동물을 이용한 생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생태 회복 가능성은 굴포천, 승기천에서 실지렁이·붉은 깔따구 등 오락치 3.0 이상 저서동물이 우점종이지만 공촌천

상류, 장수천 등 일부 지점에서 무늬하루살이·꼬마줄날도래 등 오락치 1.0 이하 수서환경 지표생물종이 출현해 건강성 회복 정도는 하천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사업은 정기적 생물상 변화 관찰 및 생물다양성 조사 기반을 구축해 하천별 환경 특성을 비교하고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 관리 방안을 찾는 등 앞으로 도시 생태하천 자연성 회복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출발점으로 의미가 있다. 안종삼 기자

송도국제도시 ‘영어통용도시’ 만든다

IFEZ ‘발전자문위원회’ 개최  
중·장기 전략 수립정책 논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를 ‘영어통용도시(Bilingual City)’로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16일 송도 G타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발전자문위원회(기획정책분과)를 개최했다.

김진용 청장을 비롯 이순학 인천시의회의원, 허동훈 전 인천발전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위원회에서는 영어통용도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 방향과 지속가능한 정책 실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조동성 전 인천대학교 총장과 이종엽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2명을 신규위원으로 위촉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영어통용도시

조성은 △영어 상용화 거점 지정 △영어장벽 없는 국제회의 도시 구축 △문화·사회 정보의 영어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시민 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외국인 인들의 언어 불편 개선을 통한 외국인 생활 여건 개선,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 촉진 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전문가 자문 및 세부사업 수정·보완을 거쳐 오는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 10월에 영어통용도시 선포식과 영어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진용 청장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개방과 통합’이라며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영어통용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IFEZ는 이미 영어통용도시를 성공시킬 수 있는 대내외적인 여건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잘 추진된다면 미래 세대에겐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종삼 기자

관광두레 예비 PD·주민사업체 공모

인천관광공사, 500만원 지원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023 인천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에 참여할 예비 PD와 예비 주민사업체를 모집한다.

관광두레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 자원의 연계를 통해 관광 사업체를 육성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래 3년째 예비 PD와 주민사업체를 발굴·육성하고 있다.

이번 공모 대상은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 기선정 지역인 동구·미추홀구를 제외한 8개 군·구(강화군·옹진군·중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에

서 예비 PD 활동을 희망하는 인천시민 또는 해당 지역에서 관광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주민사업체다.

공모에 선정된 예비 PD는 사업계획 수립·계획서 작성 교육, 개인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쌓을 수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PD 선정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예비 주민사업체는 △관광두레 기본교육 △사업 성장 교육 △사업 컨설팅을 지원 받으며 사업체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사업 고도화 지원금(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인천관광공사·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되며 모집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다.

이주희 인천관광공사 관광산업실장은 “인천 관광두레 예비 PD·주민사업체 발굴과 육성을 통해 주민주도형 지역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종삼 기자

올바른 분리배출... ‘생생 현장교육’ 실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 매립현장서 진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청소담당 공무원과 시민대표를 대상으로 폐기물 매립 현장에서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생생 현장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시민들에게 분리배출 필요성과 경각심을 심어주는 등 시민 자율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해 이뤄졌다. 지난날 서울시 중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이번 달

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교육은 크게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혼합반입 실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등 이론교육과 시민들이 거주지역 폐기물의 반입규정 위반여부를 직접 신속해보는 현장체험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시민은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안 되는 폐기물을 직접 검사해보면서 그동안 분리배출 할 때 헛갈렸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됐다”며 “앞으로는 분리배출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매립지공사 최병진 반입검사팀장은 “매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 청소담당 공무원과 시민대표를 대상으로 폐기물 매립 현장에서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생생 현장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해야 하는 폐기물만 매립하고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폐기물은 자원화시설로 배출될 수 있도록 현장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